

농어촌공사 의령지사, 경영실습 임대농장 준공

☞ 하청일 기자 | ☎ 승인 2022.01.03

의령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경험을 제공할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들어섰다.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,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창업자금 마련기회와 안정적 시설운영 역량을 높일 임대농장을 지난해 말 준공했다. 이 사업은 의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공모에 선정돼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와 위·수탁 협약을 함으로써 진행됐다.



의령지사는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의령군 유희터(의령군 소유)를 활용해 약 2400㎡ 스마트 비닐온실 2개 동을 신축했다.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해 자동제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비닐온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3년간 임대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초기 자본투자 없이 운영경험과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.

박성수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은 "영농 경험이 부족한 의령 청년농업인에게 농장을 저렴하게 임대해 영농 경험을 쌓아 창업농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다.